



산업부 국내여비 조정은 4월부터 시행되어 국가재정전략회의(6.28 개최)와 무관함

〈보도 주요내용〉

- 8.7.(월) 서울경제 「尹 한마디에 절반으로 ‘뚝’, 출장비 삭감에 관가 ‘부글’」에서는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출장비 감액의 직격탄이 되어,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출장비로 5만원이 아닌 2만 5000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〈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〉

- 정부 부처의 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예산의 부족 및 그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시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산업부는 코로나 팬데믹 완화, ‘현장 산업부’ 구현 등에 따른 국내 출장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 4월부터 국내 출장시 운임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비·식비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국내 여비의 조정은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, 6월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창희	(044-203-5050)
		담당자	팀 장	김정운	(044-203-5080)
	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배준형	(044-203-55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성훈	(044-203-5516)